



초록 숲 같은 설치 작업을 펼친 김미지 개인전. 작가 제공

거칠게 뒤엎킨 초록 숲 관조 넘어 풍경 내부로 김미지 개인전 15일까지

그는 전시 소식을 알리는 자료를 전자 메일로 띄우면서 “삶의 전면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보지 못했던 50대 여성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육아로 오랜 기간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5년 무렵 다시 캔버스 앞에 섰고 평면에서 설치까지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 왔다.

지난 6일부터 답소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제주시 은남4길 22)에서 진행 중인 김미지 개인전. ‘컨템포러리 랜드스케이프-그린(Temporary Landscape-green)’으로 이름 붙인 전시로 제주에서 마주한 자연을 그만의 시선으로 해석한 가상의 정원을 펼치고 있다.

200호 크기의 회화와 함께 설치한 작업들은 작가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 위에 무수한 실을 얹어 떠낸 뒤 이어 붙여 만들었다. 그렇게 곳자알 초록 숲에 사는 식물 같은 설치 작품들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관람객들이 널브러진 풍경 속을 거니는 경험을 하도록 구성했다.

작가는 “거칠게 뒤엎킨 풀숲과 제멋대로 뻗어 나간 줄기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혼란과 시련을 닮아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을 발견한다”며 개인적 서사가 투영된 전시로 초대했다. 15일까지.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주말, 여기 제주예술문화축전·칠십리 예술의 바람

도심 공원·관광지에서 일상 속 예술

제주예총 8개 회원 단체 참여 13-14일 노형근린공원 일원 서귀포예당·서귀포예총 협업 14일 저녁 칠십리아외공연장

제주 예술인들이 주말 도심 공원에서, 유명 관광지에서 일상 속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제주예총)의 ‘2026 제주예술문화축전’, 서귀포예술의전당과 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서귀포예총)가 협업한 ‘칠십리, 예술의 바람 속으로’ 공연이다.

제주예술문화축전은 ‘꽃 피어나는 순간, 예술이 스며들다’란 주제 아래 13-14일 이틀간 제주

시 노형근린공원(제주우편집중국 맞은편) 일원에서 열린다. 청소년 참여 확대, 장르 간 협력, 세대 간 소통 등을 취지로 치러진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첫날엔 노형동 민속보존회의 길트리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축하 공연, 버블스유퍼의 ‘벌룬&버블쇼’ 등이 이어진다. 개막식에서는 ‘희망의 바람 개비’ 세리머니, 연극인들의 ‘신 뺨파전’ 공연을 준비했다.

둘째 날에는 문인·사진·연극·미술·음악·건축·무용·국악 등 8개 회원 단체의 ‘예술인 화합 한마당’과 함께 ‘우리동네 슈퍼스타’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아코디언 앙상블과 플루트 연주, 한라초등학교 합창단 공연이 잇따른다. 마지막

순서로는 버스킹 무대인 ‘청춘 마이크’를 즐길 수 있다.

축전 기간에는 어린이 사생 대회(오후 1-8시)가 진행된다. 반딧불이 체험존, 버블놀이터, 샌드아트, 코스프레 체험, 커피 박 업사이클링 도어벨 만들기, 오픈 캔버스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펼친다.

‘칠십리, 예술의 바람 속으로’는 천지연폭포 입구에 조성된 칠십리아외공연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장구춤·소고춤 등 흥겨운 전통 춤으로 막이 올라 감각적인 현대 음악으로 피날레를 향해 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6월의 추억을 안긴다.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6시, 무용·국악·음악 장르 회원 단체의 예술인들이 차례로 출연해 ‘오돌토기’에서 ‘리베르탱고’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빛낸다.

진선희기자



2026 제주예술문화축전 포스터. 제주예총 제공

공연 소식

앙상블 릴로 정기 연주회

제주 출신 클라리네티스트들로 구성된 ‘앙상블 릴로’가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달 13일 오후 3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

이날 윤태형·김우영·윤소영·김세영 등 ‘앙상블 릴로’ 멤버로 활동하는 기존 4인 중심 편성을 확장해 김하운(이플렛 클라리넷), 이현숙(피아노)이 객원으로 참여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본파의 ‘오르페의 노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슈트라우스의 ‘틸 오일레슈 피뢰의 유쾌한 장난’ 등이다. 2026년도 메세나매칭결연사업으로 마련됐다. 관람료 무료.

4·3 연극 ‘동백이 피는 꽃’

한 어머니와 아이의 시선을 통해 제주 4·3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주최·주관으로 이달 20-21일 오후 7시 제주시 원도심 고쭈주택(제주시 관덕로 17길 27-1)에서 공연하는 ‘동백이 피는 꽃’이다.

이 작품은 제주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프로젝트 다년지원사업으로 제작됐다. 부제는 ‘보지 못했던 시간, 끝내 이어진 삶’. 연극을 중심으로 음악과 샌드아트가 결합된 융복합 공연으로 공동 연출 강원도 극단 노들의 원영오·제주 자파리연구소의 조은, 샌드아트 조은, 배우 서승아·박현수가 참여한다.

제주청소년연극제 개최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제20회 제주청소년연극제가 열린다.

제30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예선을 겸한 행사로 이달 14-22일(16일 제외)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첫날 대기고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15일=신성여고 ‘평소처럼’ ▷17일=한림고 ‘철필에 핀 동백’ ▷18일=제주여고 ‘이젠, 안 미안’ ▷19일=남녕고 ‘탐과 그림자’ ▷20일=중앙고 ‘고요 속의 외침’ ▷21일=제주고 ‘사소한 것들’ ▷22일=제주시대부고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가 공연된다.



박철의 ‘앙상블 3-66(2003)’.

이룸갤러리 제공

겹겹 한지 위 바이올린·명석 앙상블

작고 작가 박철 한지 작품전 오는 23일까지 이룸갤러리 유족 협업 20여 점 부조회화 동서 만남 대비 한국성 탐색

생전에 그가 쓴 ‘작가 노트’를 보면 조상들의 미감과 지혜에 대한 감탄, 그것들이 사라지고 잊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그래서 그는 한지, 명석, 떡살 등을 가져와 거기에서 새로운 미학과 미적 표현을 탐구하는 일을 작업의 화두로 삼았다.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를 지낸 박철(1950-2023) 작가다.

지난해 고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을 열었던 제주 이룸갤러리가 이번에는 ‘앙상블(Ensemble)’이란 주제를 내걸고 박철 한지전을 기획했다. 이달 10-23일 이룸갤러리 한라일보점에서도.

작가는 일찍이 한지 부조회화라는 독특한 조형 방식을 선보였다. 한지를 이용해 사물의 형태를 떠내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그의 작업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종이를 쌓아 올려 완성한다. 이 과정에 약 30겹의 한지를 반복해 붙인다. 선불리 흉내내기 어려운 조각적 볼륨감의 작품은 그만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했다.

유족과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기획전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반 작품까지 20여 점이 나왔다.

그가 빛은 화면에는 왕골을 촘촘히 엮은 명석의 격자무늬, 낫과 밭갈이의 흔적 등이 새겨졌다. 때로는 바이올린, 색소폰 등 서양 악기들이 오래된 한지 위에 올라앉아 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서의 만남이 한 화면 안에서 앙상블을 이룬다.

작가는 이를 두고 “한국적인 토속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양적인 바이올린과 동양적인 한지나 명석을 사용해 구분했다”며 “이와 같은 대비 속에서 한국성을 찾는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장은 한라일보 1층에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이다.

진선희기자

초여름 피어난 제주 산수국 제주한라전시관 3일간 전시

제주 곳곳에서 수국이 피어나는 6월, 자생 산수국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 제주한라전시관에서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2026년 산수국 전시회’다.

산수국은 초여름 제주 오름과 계곡을 수놓는 대표적인 자생 식

물이다. 토양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파란색(산성), 분홍색(염기성), 보라색(중성)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자생 산수국과 함께 변이종, 원예종 등 70여 점을 선보인다. 12-13일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수국 소재 에코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제주한라전시관 누리집 참고.

진선희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장희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아라동갑)



김봉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아라동을)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라동 지역자율방재단